

제 10장 제국과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II

◆1교시 : 가네코 후미코 와 박열 4

▲피사진 사건 2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이름은 유명인사였는데 둘이 감옥에 있으면서 다정하게 있었던 사진, 드라마에서는 똑같이 재현을 했죠. 세련된 여성이 책을 보면서, 멋진 혁명과, 예심판사가 둘을 같이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마음을 풀게 한거죠. 그전에는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는데 둘을 같이 있게 해줬고 법정에서는 판사가 한참동안 밖에 나가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만들죠.

판사입장에서는 대역죄로 조작해내기 위해서이고, 사진은 중요한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 유출된 것은 간수로 있었던 사람이 박열에게 받아서 나가죠. 누구한테 전달해달라, 부인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형언도도 되었고, 며칠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내려주지만, 사진을 주면서 나가는 동료에게

부탁을 했었죠.

그것을 일본 정치인들한테 넘기죠. 그것을 가지고 성명서를 써서 보도자료로 일본 언론사에 뿌려요. 일본은 되돌릴 수 없는 군국주의로 들어가 15년 전쟁, 태평양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을 15년 동안, 1931에 시작, 1945년까지 했는데, 혹은 태평양전쟁이다라고 하는데, 마치 태평양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죠.

사실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인도양도 강제로 침입했죠. 전쟁을 일으키는 와중이어서 1923에는 군국주의의 길로 돌아가서, 천황은 메이지 유신 이후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죠. 지금은 상징적이지만,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명령권자가 천황이었죠.

일본이 만주사변후 일본 정치가들은 반대를 했는데, 강경하게 나온 것은 군부였죠. 니들이 뭘데 우리 천황이 내린 명령을 막느냐면서 시작했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놀라죠.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천황제 반대자들을 살려두는 것도 그런데, 사진까지 찍냐해서 당시 판사는 사표를 냈고, 내각 총사퇴를 하게 되죠.

정치적 의미가 컸는데, 그 판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사진의 의미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진이죠. 개인적으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고, 이후에 잘 협조를 했다고 하고요, 다른 불경사회원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 혼자 폭탄 입수계획, 천황암살계획을 했다고 진술을 하죠.

그 후 가네코 후미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사진유출과 더불어 가네코 후미코의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감옥에서 문책을 받겠다고 해서 간수들이 가

네코 후미코를 죽였을 것이라라는 정황으로 볼 때, 맞는 것 같다.

가네코 후미코가 자살을 했다고 발표하지만 임신했기 때문에 은폐하기 위해, 가네코 후미코를 가만두지 않았고, 반발했고, 그래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죠. 가슴 아픈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이 1926년이죠. 24살에 죽었죠. 감옥에 들어가 천황제에 맞서는 투쟁을 하면서 죽게 되죠.

▲가네코 후미코의 어린 시절

가네코 후미코는 주옥같은 말을 많이 남기는데 일본이 천황제로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가네코 후미코는 정규교육을 못받았어요. 초등학교도 가네코 후미코가 원해서 간 것이고, 여성의 교육보다 재봉틀 배워라, 결혼해서 아이 낳아라라는 말을 듣고 자랐죠. 또 가네코 후미코를 키우려는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시절을 보냈죠.

가네코 후미코의 어머니도 여러 남성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나갔다고 하는데, 아이는 소홀하게 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가네코 후미코를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생부조차도 가네코 후미코를 짐으로 여겼죠. 가네코 후미코가 조선이라는 것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끼면서 일본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조선에 가게 되면서예요.

외할머니, 충북 청주부근으로 오게 되죠. 1914무렵인데, 조선에서 일본인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인 학교도 일종의 일본의 부유층들이 다니던 곳이에요. 가네코 후미코의 외할머니 쪽은 부유했던 사람들인데, 가네코 후미코가 처음 갔을 때, 자기 집안의 딸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허드렛일이나 하면서 같이 지내는 삶을 살게 했죠.

조선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교를 다니던 자제들은 일본 고위층인데, 오히려 어울리게 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조선인들인데, 자신의 처지와 조선 민중들의 삶에 공감을 하게 된거죠. 그런 설움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3. 1운동을 눈으로 보고 또 변두리였던 지역에서도 조선인들이 만세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감격을 느꼈다고 해요.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만남

1919년 4월에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와서도 공부하고 싶다고 전전하는데, 집에서 제대로 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일이나 하라고 하고, 나와서 혼자 살겠다해서 도쿄로 올라와서 자기가 일하면서 배우면서 살게 되는데 1920년이죠. 운명적으로 조선인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박열을 만나게 되죠. 1926년 4월이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는데,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조선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박열이 멋진 시를 써서 읽고 간 후, 저 사람이 누굴까 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사람이 박열임을 알고 일본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두 사

람의 관계가 가까워졌죠.

동거하면서 약속을 하게 하죠.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라라고 하죠. 봉건사회였는데, 나를 연약한 여성으로 대하지 말고, 너도 우월한 남성이 아닌, 평등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것들이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선전물들 만들어 뿌리고, 모임을 잡고 이런 활동을 하죠. 1921, 1923까지 여러 선전물을 내면서 두 사람이 활동을 한 것은 잠시 후에 하죠.

◆2교시 : 가네코 후미코 와 박열 5

▲박열의 사상

박열의 경우 기존의 연구자들이 지녔던 생각,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박열의 모습,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 내세우고 있는 것, 천황제에 반대했던 반일운동가,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해석하죠.

아나키즘에 입각한 사람들도, 아쉽다, 적극적으로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한계라는 등의 어느 순간 전향하고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한국정부와 이승만과의 밀월관계, 우익으로 점철된 민단에 초대회장을 한다거나 한 것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았죠.

아나키스트들이 박열을 얘기할 때 1926년까지의 박열이죠. 나중에 박열이 보였던 모습은 사실은 민족주의적 기반이 강하게 가질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가네코 후미코가 똑같이 박열처럼 살아있었다라면 가네코는 다른 길을 걸었을 거라는 생각이죠. 들었던 낭송했던 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1923년 붉은 태양처럼 빛나던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아나키스트 박열과 아내 가네코 후미코의
오래된 사진을 신문에서 발견했다

소파에서 한 쌍의 잉꼬처럼
박열의 품에 안긴 가네코 후미코는
행복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다
박열은 가네코의 가슴에 한 손을 얹은 채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일까
아니면 하이쿠 시집일까

1926년 감옥 독방에서
가네코 후미코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부드러운 그녀의 가슴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텅 빈 눈동자와 일그러진 입술
자살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타살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슬픈 시체
아버지의 나라를 배반하고
천황을 살해하려던 마녀의 몸에서
향긋한 벚꽃이 피어났다

가네코 후미코의 시체는
박열의 고향인 문경에 묻혀 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온 후미코가
동경대학 도서관으로
걸어간다

국가, 법, 감옥, 사제, 재산, 계급이 사라진 세상!
가네코 후미코가 연분홍 기모노를 입고
허공을 나비처럼 날아다녔다

난 일본 제국의 아나키스트였어
아무도 날 검열할 수 없었어
자유의 날개를 가진
날 꺾을 수 없었지

사랑하는 박열의 품에 안겨
꽃노래를 부르며 책을 읽던 그녀가
봄비를 맞으며
나의 서재를 다녀갔다

시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자유가 구속된 가네코 후미코가 경험을 하면서
자유에 대한 이상을 키웠죠. 바로 위에 국가, 법, 감옥, 사제, 재산, 계급이 사라진 세상!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가네코 후미코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을까, 아마 안 읽었을 듯 해요. 당시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자본론을 안읽었다고 해요.

슬픈 시체 /아버지의 나라를 배반하고 /천황을 살해하려던 마녀의 몸에서 /향긋한 벚꽃이
피어났다 //

자기가 살고 싶었던 세상을 그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가네코 후미코의 시체가 문경에
지금도 있어요. 박열을 독립운동가로 대우를 해주면서 몇 억원의 예산을 들여 박열의 생가

와 묘소를 꾸미죠. 1974년 북한에서 박열이 죽고 나서 평양의 혁명열사릉에 묻혀요.

가족들, 문경의 박씨가문이 가네코 후미코의 시체도 박열가문으로부터 집안사람으로 받아 들여져서 그 부근에 고향에 묻히죠. 여기에 아나키스트들이 찾아가는 곳이 이 묘소예요. 박열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박열, 한국 독립운동가의 일본인 아내로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고, 독립적인 활동가로 바라보기 보다는 한 사람의 아내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극복해야 하죠.

자서전도 번역하고, 가네코를 독자적 활동가로 보려는 경향이 생겼죠. 일본에서는 박열과의 관계보다는 천황제를 온몸으로 거부한, 가부장적 사고방식, 반일 민족주의적 경향이 합쳐져서 가네코 후미코의 그림자를 덧씌웠죠. 어떤 사람들은 조선을 사랑했다. 한국인 입장에서 미수다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인이 아닌 서양인들,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열등감일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가네코 후미코를 소비했던 것 같아요.

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건 아니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데요. 한 나라, 억압받는 사람을 사랑했지, 식민지인 남자 박열을 사랑했다와 식민지 조선을 사랑했다는 확대해석을 반대하는 거예요.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 한국인 한 명이 우주에 갔다고 할 때 한국이 드디어 우주에 갔다하는 것이죠.

▲민족주의와 열등감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 생각이죠. 여러 민족이 경쟁을 하는데, 힘있는 민족이 되어야 국제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 민족의 경우에는 약소민족의 설움을 많이 느껴왔다는 것이 민족주의자들의 원형적인 생각이죠.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키워드죠. 일본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열등감이 치유되는 거죠. 잘난 서양 선진국 사람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느낌인 거죠. 우리도 당당하게 OECD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인 듯 해요.

민족주의는 다 심해요. 한국이 더 심하다는 것도 한국 중심적인 생각예요. 다른 나라의 경우와 사회를 모르면서 우리의 세상을 모든 세계로 확대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가네코 후미코가 근대 일본의 발전과정에 막판에 있었던 거죠. 1870년 메이지 유신이었을 때, 근대 일본의 미친듯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흐름이죠, 강력한 서양을 본받아야 한다. 아시아 전체는 열등했고, 신기술과 대자본, 새로운 무기, 부강한 자본을 가진 서양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국강병이라는 이름하에 동아시아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침략적 제국주의로 차츰 바뀌어갔죠.

파국이 시작된 것은 전쟁이 시작한 지점이고, 가네코 후미코는 개인적 삶에서 느낀 것이고, 될성부른 것은 싹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가네코 후미코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거죠. 조용하게 결혼이나 하면서 남편 수발이나 들어라. 가네코 후미코는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자신이 겪었던 차별은 천황제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경향, 침략적 제국주의 경향을 느끼게 된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아직까지도 우리도 반성하지 못한다.

▲패망 후 일본의 행보

1945년 이후 일본은 다른 길을 가냐, 아니죠. 일본은 평화헌법, 전쟁을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한 나라를 꿈꾸고 있고 한국은 그것을 비판을 하면서도 군사대국이 되려는 야망이 있었죠.

일본인들은 가네코 후미코도 비판했지만, 일본인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하관계만 맺는다고 하죠. 상하로 나뉘어야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죠. 일단 말에서 남아 있죠. 상하관계로 따져서 말이 달라지니까 사고방식도 달라지죠.

일본의 경우 천황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죠. 일본인들은 나이, 군인, 직장은 먼저 들어왔느냐, 남성/여성의 경우는 성별로, 또 상하로 서열로 나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문제였죠. 일본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도 상과 하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그것을 한국의 박정희가 이용했죠. 일제에 배웠던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가네코 후미코는 그것까지 비판한거죠. 천황제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천황이 있고, 그 아래 신하가 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중들이 있는 것이죠.

상하관계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한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박열과 만나서 살면서 동등한 인간으로 만나자라고 했고, 그런 출판물을 만들면서 천황제가 문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일본의 천황제가 가지고 있는지에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황제를 비판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은 어떤가, 얼마나 위계적인가를 반성해 봐야되죠. 가네코 후미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을 사랑했다기 보다는요.